소시오컬처전망
SOCIO-CULTURE FORESIGHT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팟르포르타주

사진 및 글: 이상훈

자전거
Life style
-1편-

현재 자전거의 시설물을 바탕으로 자전거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 분석 및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a. 회사원K씨의 페르소나

직업은 회사원- 잠실에 거주하고 있으며 32살이며, 한강이 가까워 야간에 자전거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탄다.
취미생활은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 것이며, 가끔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내를 돌아다닌다.
자전거동호회 회원이어서 가끔 동호회 활동도 한다. 자전거는 스트라이다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쉽게 접을 수 있는 기능과 가벼움 그리고 집안에 넣을 때 공간을 차지 하지 않으며, 새로운 스타일때문에 한번씩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점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다.

b. 한강의 자전거도로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예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위해 좋게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되어 있어 야간에 시간이 날 땐 어김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 자전거를 탄다.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과 사람들과 경치를 볼 수 있어 정말 좋은 공간이다. 집이 한강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 쉽게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만약 한강에 인접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쉽게 한강을 찾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종종 한강에서 보면 한강을 이용하여 마트를 가는 사람들 혹은 학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구간도 정해져 있어 가능할 뿐 다른 구간에서의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경관이다.

<그림1 한강의 자전거지도>

<그림2 한강의 자전거도로>

c.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진입.

오랜만에 회사원 k씨는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모임장소에 나가기로 했다. 자전거가 스트라이다라 시내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걱정을 한다.
약속장소가 강남이어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다 압구정 근처에서 벗어나 도로를 인접해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자전거도로가 보이지가 않는다. 차도 쪽은 차가 많은 장소라 위험해 인도를 통하여 자전거를 타고 갔다. 하지만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가 힘들다. 또한 차도로 가기엔 차들 때문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를 발견하였지만 말뿐인 자전거도로 일뿐 가로수길이다. 가로수를 위한 공간이다.

<그림3 자전거도로>

새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이라 차들이 자전거도로로 침범해 쉽게 진입을 못할 만큼 차가 막히는 시간이면 어느새 자전거도로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모임장소에 간 시간은 차도와 인도를 왔다갔다한 시간때문에, 오래걸렸으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c. 자전거보관

모임장소에 도착한 후 난 주위의 자전거 거치대 및 주차장을 찾지 않고 모임장소에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접어 모임장소내부에 들고 내려간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도난 때문이다. 자전거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라 도난 당하기가 일쑤여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시엔 항상 내부에 들고 들어간다. 불편한 감은 있지만 도난을 당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만약 접는 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였다면 자전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을 듯 싶다.
모임이 끝난 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간다. 한강에 도착한 후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간다. 집으로 돌아 온후 자전거바퀴가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손상이 많이 갔다. 다음부터는 시내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일은 없을 듯 싶다.

친구들에게 한강에서 자전거를 같이 타자고 제안을 해보았지만 한강까지 오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도 시내를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한강을 지나면 자전거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상태가 되어버린다.

c.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전거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을 타러 가는 구간이 길어 힘이 든다. 일본은 자전거를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한국은 아직은 설치가 된 곳이 한정적인 구간만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대중교통에선 자전거를 배려한 공간이 없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탄다면 장애인을 위한 구간에 자전거를 놓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자전거의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도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강자전거도로에서만 자전거를 아직은 탈 수 밖에 없다.

<그림4 한국의 자전거통로>

<그림5 지하철 안 자전거>

•현재 한국의 자전거 라이프스타일은 한강 이외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전거와 뒤죽박죽인 자전거도로, 한정된 자전거주차장, 그리고 중요한 안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편에선 이런 문제점이 된 환경이 개선된다면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이 바뀔지 상상을 해본다.